초연결사회 속에서 스마트성전

(열왕기하 11:1~3)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초연결사회 속에서 스마트성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초연결사회 속에서 스마트성전'
요즘 시대를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TV, 식탁 등이 인터넷과 연결이 됩니다. 이를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인터넷과 연결되며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집안에 있는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집안의 모든 기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카도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문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뭉치면 죽고 연결하면 산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동지 동창 동족 동향이라고 해서 같은 유의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다른 부류의 그룹들이 연결되는 점에서 융합적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창조는 서로 다름의 연결"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뭉치면 죽고 연결되면 산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초연결사회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어서 "창조를 꿈꾼다면 연결하라"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이 땅의 평면상에서의 연결만을 강조합니다. 수직으로의 연결을 이야

기하는 자가 없고 꿈꾸는 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조차도 종교의 틀에 묶여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인사대천명을 외치는 성실한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종교로 균형 맞춘 문화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창조 연결의 본래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이유는 철저한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성경에 있던 개념을 현대에 되살렸기 때문인데 어떤 의미에서 창조와 연결이 성경적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초연결사회 속에서의 스마트성전'입니다.
전화가 등장했을 때에 처음에는 동네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집마다 하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별로 쓰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개개인이 갖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처럼 스마트성전도 개개인이 가져야만 합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인터넷에 연결될 수는 있지만 하늘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창조를 꿈꾸면서 연결을 시도하는 자들조차도 창조주와의 연결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선민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스마트성전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는 것처럼, 선민이 하늘과 연결될 때에 스마트성전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선민은 자기만의 성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성전이 인터넷과 비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어느 것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터넷이 뻗어 있는 한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다른 모든 것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채로 평면적인 연결만을 꿈꾸면서 창조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가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할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엄청나게 악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하게 생각하자면 로마의 가도가 주변국을 침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가 복음이 뻗어가는 통로가 된 것처럼 또 다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고유한 창조와 연결은 하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창조주께서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결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들과 가장 올바른 형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마

트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성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다보면 신앙은 거짓말이 되고 가짜임에 대한 반증이 나타납니다.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시청이 되거나 심지어 불교의 사찰이 되는 것도 보았고 술집으로 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거꾸로 술집이었던 곳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절간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시청건물도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휴게소 화장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모든 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참 의미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목적은 연결입니다. 성전은 하늘과의 연결을 위한 독특한 설계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과 구성은 다름 아닌 참 선민의 마음을 형상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선민의 마음이 변해서 이루어야 될 설계도입니다. 마음이 성전의 모습을 따라 바뀔 때에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전화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스마트폰이 되듯이, 하늘에 연결된 마음을 스마트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설계도면을 하나 만들면 백 채를 짓든 오백 채를 짓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백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선민들의 마음의 설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민 개개인의 개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선민의 마음이 성전과 동일한 모양의 설계와 구성으로 하늘과 연결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사람만을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의 차이가 있어서 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양자체가 달라서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민의 마음은 똑같은 성전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만물에 연결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성전의 구성과 설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 마음은 스마트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연결하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나의 삶은 가장 합당한 것들과 연결 될 수 있고 참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 왕국에서는 군대 장관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요람 왕을 죽이고 문병을 왔던 남 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벨과 아합 가문 전체를 몰살시켰는데 이 소식을 아달랴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남 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이자 여호람 왕의 아내였고 또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남 왕국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남편인 여호람 왕과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그 정책을 아들인 아하시야 왕에게도 계승시켰습니다.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고 오빠였던 북 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죽었으며 친정인 아합 가문 전체가 멸절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태후의 입장에서 남 왕국 유다의 왕권을 찬탈하기로 결정하고, 아하시야의 아들들인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립니다. 자신의 친손자들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다윗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포학하기 그지없는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며 왕이 되는 가운데, 아하시야 왕의 이복여동생이었던 여호세바와 그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하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갓난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아이를 6년간 길러냅니다.
그 동안 아달랴는 왕좌에 올라 바알 숭배를 권장하며 6년 간 남 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의 계약을 맺으셨으면서도 포악한 아달랴를 남 왕국 유다로 시집을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다윗 가문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왕자들의 죽음과 도망하여 성전에서 살게 된 요아스를 대비시켜 보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사실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손자들을 죽인 일은 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여호람 왕에게 바알 숭배를 권장하여 바알 숭배를 하였고 아들 아하시야를 바알 숭배의 분위기에서 양육하므로 그것을 본받아서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예루살렘 성안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손자들도 전부 바알 숭배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달랴는 남 왕국 유다의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이미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왕궁 옆에 성전이 있었는데 아달랴가 정권을 찬탈해서 친손자들을 다 죽인 상태에서, 요아스가 왕궁 옆에 있던 성전에서 살아남아 자랐다는 것인데 즉 왕좌에 앉은 아달랴의 마음에서 여호와의 성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부속 건물이 있었지만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이나 왕자를 숨겨 기를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달랴에게 있어서 성전은 완전히 관심 밖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성전은 관심 밖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알 숭배가 권장되고 있었고 나라 전체에 돈 잘 벌고 부자 될 수 있다는 약속과 희망이 편만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성전에는 사람의 왕래가 끊어졌기에 요아스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 그대로 있었지만 성전의 설계와 구성대로 자기의 마음을 성전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직 아기였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 중에 돌도 안 지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구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기릅니다.
나중에 보면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도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의미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구출한 것은 내용적으로는 먼지가 쌓이고 잊혔던 성전을 부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 성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마음을 성전의 모습대로 교육하고 양육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성전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달랴가 죽인 모든 왕자들은 혈통 상으로는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아합 가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왕권찬탈야욕에 눈이 먼 아달랴는 다 죽였습니다. 마치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며 돈을 갈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목에 면도칼을 대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하고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느낌이 드는데 이 갓난아기를 구하지 못했다면 다윗 왕가는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시고 그 마음 안에 성전을 부활시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의 표본입니다.
아무도 성전의 모양대로 마음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 요아스만은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마음을 성전 모양으로 만드는 양육을 받았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그 옛날의 성전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삶에 대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만을 모셔 들여서 떡상의 의미대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만족하기를 분향단의 의미로 추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기준판단을 따르기 살기 위해 등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위의 속죄소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죄를 깨닫고 이러한 죄적인 성향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그 의미를 내 마음에서 되새길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

결된 스마트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스마트성전이 될 때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사물(돈, 명품, 차 등등)은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는 이미 성경이 선포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을 통해 원수를 대하며 올바른 연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늘과 연결된 스마트성전을 통해 살아간다면,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 이상의 나만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내 마음이 스마트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